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노후관정 보수보강 사업 착수

윤 현대성 기자 | 승인 2025.05.29 10:25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노후관정 보수보강(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총 3062공이며 이 가운데 공공농업용 관정은 940공이다.

이 가운데 754공은 개발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관정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강화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 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노후관정 보수보강사업은 노후 관정을 대상으로 오염차단을 위한 그라우팅 작업, 노후시설 교체, 수질 분석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라우팅(Grouting)은 관정 주변 지반의 틈새를 차단해 외부 오염원이 지하수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공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낡은 지하수 관정이 최신 관정 수준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제주 농업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관정 보수보강 사업으로 도내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시공 관리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삼다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성 기자